

한국 사회의 갈등을 들여다보다 속의 민주주의의 실험장

2019



SDF 시즌 2로 두 번째 해를 맞은 SBS D포럼이 10월 31일(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인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하거나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의견 양극화'의 실태를 다뤘다.

SDF팀이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1%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10명 중 6명은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81.1%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70%는 중도적인 의견은 무시되는 사회라고 느끼고 있었다. 또 59.4%는 나의 생각과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고, 52.6%는 나의 생각과 입장이 비슷한 언론매체도 없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는 서로에게 전혀 들리지 않고, 우리는 다르면 같이 어려울 수 없는 것일까? SDF 2019는 "변화의 시작 -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 갈등의 실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달라도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소통 방식, 그리고 시스템에 주목했다. SDF 연구팀은 2003년부터 지난 16년간의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과 거리 갈등의 핵심인 북한에 대한 입장과 정치 성향 두 가지에서조차 양극단보다는 중간층인 '진지한 주시자'가 대다수임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단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이유는 온라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사이트에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이넵 투팩치 등 세계적인 기술사회학자들은 주장했다. 언제 어디서나 소통의 창구가 되어 준다고 생각한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우리를 가르고 끼리끼리만 소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SDF 2019에서는 갈등을 악용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온 정치권, 미디어의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용감한 의원들'이라는 세션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밖에 소통하지 못하는지, 정치인들에게 싸움은 무엇이고 더 격조 있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논했다. 하버드 니먼재단과 공동 기획한 미디어 세션에서는 미디어가 갈등을 어떻게 다르게 다룰 수 있는지 여러 사회실험 사례를 제시했다. 또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름을 다르게 연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현대무용가 안은미, 건축가 로널드 라엘, 영화 '벌새'의 감독 김보라를 통해 전했다.

이번 SDF는 정치, 사회, 기술,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휩쓸리지 않을 권리,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강조했다. 특히 언론사가 주최하는 사회공헌 지식나눔 프로젝트로서, 팩트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전하고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같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속의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화의 시작: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매일 싸우는 것이지만
국회의원들은 생각보다 서로 가깝다

The Beginning of Change
: Is that REALLY?

SDF 변화의 시작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SBS D FORUM

SBS D FORUM

맛 좀 보실래요? 아침드라마 맛집 SBS가 만들면 뭔가 다르다



아침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극본: 김도현, 연출: 윤류해)가 11월 12일(화) 아침 8시 35분에 첫 방송된다.

<맛 좀 보실래요?>는 우리 집안에도 한두 명 있고, 우리 동네에서도 한두 번 본 적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지극히 통속적인 이야기를 그린다. 내 이야기 같고, 내 가족의 이야기 같은 '유쾌 발랄 가족 통속극' <맛 좀 보실래요?>는 <원더풀 마마>, <돌아온 황금복>, <강남 스캔들> 등을 연출한 윤류해 PD와 아침드라마의 퀸 심이영, 아침드라마의 황태자 서도영이 만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이영은 극 중 남동생 친구인 여섯 살 연하의 남편과 사는 강해진 역을 맡았다. 해진은 남편을 명문대 법학과에 진학시키고 시아버지가 떠맡긴 식당을 야무지게 꾸려오는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여자다. 그러나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롤러코스터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된다.

서도영은 드라마 작가 오대규 역을 맡았다. 데뷔작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대규는 출연 배우였

던 유란과 결혼까지 했으나 결혼 후의 아내는 냉랭하기 이를 데 없고, 작가로서의 경력도 진전이 없다. 밥집 아줌마와 '술가락 도둑' 배달 손님으로 얽히게 된 해진과 대규는 티격태격하다가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아픔을 함께하면서 악연에서 우정으로,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

해진의 철없는 남편 이진상 역은 서하준, 부잣집 고명딸이자 진상보다 더 철없는 내연녀 정주리 역은 한가림이 맡고, 대규의 아내이자 전직 배우인 배우란 역은 이슬아, 유란의 내연남이자 주리의 이복오빠인 정준후 역은 최우석이 맡았다.

그 외에 임채무, 이덕희, 송인국, 안예인, 김정화, 이현경, 서상원이 출연한다.

드라마 관계자는 "<맛 좀 보실래요?>에는 독한 복수도, 뽀얀 출생의 비밀도, 흔한 재벌가의 암투도 없다. 그 대신에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고 밝혔다.

주인공의 성장담을 유쾌하고 발랄하게 그린 <맛 좀 보실래요?>는 SBS 아침드라마 불패의 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몽슈슈 글로벌 하우스> 글로벌 청춘 로맨스로 젊은 시청자 공략

SBS 모비딕의 하반기 기대작 <몽슈슈 글로벌 하우스>가 드디어 공개됐다. KT올레 TV 모바일을 통해 선공개된 <몽슈슈 글로벌 하우스>는 SBS를 통해 11월 10일(일), 11월 17일(일) 오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이후 네이버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몽슈슈 글로벌 하우스>는 럭셔리 글로벌 세어 하우스에 사는 매력 넘치는 글로벌 대표 청춘들이 펼쳐가는 일과 사랑, 우정에 대한 12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연애에 대한 세계적인 담론을 나누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이다. 다국적의 등장인물과 이들이 엮어가는 스토리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도 겨냥하고 있다.

주목받는 라이징 스타 이대휘(AB6IX)와 웹드라마 <에이틴 2>로 큰 사랑을 받은 강민아가 주연을 맡아, 제작 과정에서부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특히 이대휘는 연기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작품이어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SBS 방영을 하루 앞둔 11월 8일(금)에는 목동 SBS 13층 SBS홀에서 제작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현장에는 이대휘, 강민아, 김시은,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장민, 다니엘 히스 등 주·조연이 총출동한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배우들의 각양각색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모바일제작사업팀 김경태 PD는 "다양한 국적의 캐릭터가 만들어가는 스토리는 기존 웹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참신한 시도"라며, "독특한 설정과 배우들의 남다른 케미가 만나 색다른 글로벌 드라마가 완성됐다. TV 시청자들도 분명 만족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9 WBSC 프리미어 12 단독 생중계 도쿄 올림픽 출전권 향방에 야구팬 관심 집중

SBS와 SBS스포츠는 2019 WBSC 프리미어 12 경기를 단독 생중계하여 야구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프리미어 12는 전 세계 야구 랭킹 12위까지만 출전하는 국제 야구 대항전으로 4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2015년 일본과 대만에서 열린 제1회 대회에서는 한국이 우승했다.

한국이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한 2회 대회는 멕시코, 대만, 한국에서 각기 A~C조의 예선이 열리며 슈퍼라운드(본선)는 일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 개최국 일본을 제외하고(자동 출전) 가장 순위가 높은 팀에게 도쿄 올림픽 출전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 뜨거운 시선이 몰리고 있다. 한국, 대만, 호주 중 1개 국가 이상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할 경우 최종

순위에 따라 진출국이 가려진다. 세 국가 모두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할 경우 해당 국가 사이의 순위 결정전을 통해 올림픽 진출국이 가려진다.

편성실 스포츠회담담당 소속 조시우 차장은 "순위 결정전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 한국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이번 프리미어 12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둬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따내야 한다"고 말했다.

SBS는 C조 대한민국의 전 경기를 정우영 캐스터, 이순철, 이승엽 위원의 공동 해설로 생중계하며, 쿠바, 호주, 캐나다의 경기는 SBS스포츠에서 생중계한다. SBS스포츠에서는 A조의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멕시코 등 야구 강국의 경기도 중계하여 야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오는 17일(일)까지 열리는 프리미어 12는 온라인에서도 웨이브(wavve)로 단독 생중계한다.

부서
탐방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진화 중

- 라디오기술팀

하는 일을 알려 달라.

AM(792KHz), 표준FM(103.5MHz 러브FM), 파워FM(107.7MHz) 그리고 DMB 오디오를 방송한다. 야외 공개·공연 방송과 프로야구 중계를 포함하여 제작, 송출, 중계, 방송시스템 관리 등 송신소를 제외하고 독립 라디오 방송사의 모든 기술 경영을 업으로 한다.

주조정실은 러브FM, 파워FM의 오디오와 '보는 라디오' 영상, DMB 오디오 콘텐츠를 일일 방송은행표에 따라 송신소와 인터넷, 모바일 매체로 분배한다. 재난 방송과 중계 회선을 구성하는 것도 주조정실의 중요한 업무다. AM(러브FM), 파워FM 생방송 제작 부조정실은 '보는 라디오'를 포함하여 24시간 생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층 '락 스튜디오'는 <두시탈출 컬투쇼> 전용 스튜디오로 청취자 80여 명이 밴드 라이브 공개방송을 즐길 수 있다. 악기 연주와 노래를 위한 작은 규모의 음악 프로그램은 RS-1 스튜디오에서 제작한다. 공연·공개 방송 제작과 프로야구 중계방송, 시스템의 설계, 유지 관리도 오래된 업무다.

지금은 방송 소비자의 소비 행태와 제작자의 요구를 예측하여 콘텐츠 제작과 분배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편하는 연구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매체 변화에 따라 기술팀은 어떻게 진화해 왔나?

국내 방송통신 환경은 TV는 UHD, 통신은 5G다. 모두 디지털이다. 그러나 라디오는 유일하게 아날로그 형태로 남아있는 매체다. 지상파로서 송수신에 한정하여 그렇다는 말이다. 제작 부문은 이미 오래전 디지털로 완벽하게 전환했고, 청취 행태도 '고릴라디오'와 같은 IP 스트리밍을 많이 이용한다. 라디오 기술팀은 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춰 발전과 변화를 꾀했다.

파워FM 개국과 함께 국내 처음으로 컴퓨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오디오 파일 시스템을 적용했다. 릴 테이프, LP, CD와 종이 큐시트를 퇴출시켰다. 컴퓨터로 오디오를 편집하게 되니 제작자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라디오기술팀이 개발한 오디오파일 시스템은 국내 표준이 되었다.

라디오를 직접 수신하는 청취자가 줄어들고 팟캐스트와 유튜브 등 제3 매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영상 제작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작년에 '미래 방송환경에 대비



한 생방송 스튜디오 2.0'을 완성하여 상시 '보는 라디오'를 제작하여 필요한 모든 매체에 제공할 수 있게 했고 올해는 팟캐스트, 유튜브 콘텐츠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별도의 스튜디오도 만들었다.

부서는 어떻게 돌아가나?

팀장 포함 22명에 오디오맨 2명이 전부다.

주조정실과 러브FM은 4조 3교대, 파워FM은 3명이 시차 근무를 한다. AM(러브FM)은 종합편성으로서 엔지니어가 모든 프로그램 제작을 전담한다. 파워FM에는 엔지니어를 투입하지 않는다. 매체의 편성 특성과 경영을 고려하여 오래전부터 DJ, PD가 생방송을 하고 있다.

그 외 낮 시간 업무로 '락 스튜디오'와 RS-1 스튜디오 담당자가 있다. 이들은 야외 공개방송 제작과 프로야구 중계방송 업무를 같이한다. 또 방송 시스템 관리자,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TD가 있다. 코디네이터 TD는 제작자가 요청하는 모든 일을 한번에 처리해주는 '원 스텝', '턴 키' 방식의 업무를 지향한다.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면 된다. 코디네이터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연결하여 신속히 처리해준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교대, 시차 근무자가 70%라 큰 영향은 없다. 다만 야외 공개·공연 제작 방

송과 스포츠 중계방송 등 출장 업무는 일시적으로 통상 근무를 선택 근무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교대와 시차 근무자는 휴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나머지 근무자들의 근무 주기가 변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불규칙 근무가 길어지는 경우 낮 시간 통상 근무자들이 대근하는 등 도움을 주면서 극복하고 있다.

라디오기술팀의 다음 목표는?

카메라를 켜면 TV가 되고, 끄면 라디오가 되는 세상이다. 단순 오디오를 넘어 정확한 형태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3의 미디어에 공급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다용도 '전략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한다. 제작자가 언제, 어떤 형태의 기술을 요구할지 모른다. 예측 가능한 모든 제작 환경을 만들어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시의에 맞는 콘텐츠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지상파 라디오의 방송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은 이미 쇠퇴하고 있다. 모바일 등 기타 수신 가능한 매체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외부에 운용을 맡겨 둔, 보는 라디오로서 '고릴라디오'를 자체 운영해야 한다. 부담은 있지만 기술의 한 세대를 앞서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유윤재 예능1CP

<백종원의 골목식당>(연출: 정우진, 윤종호)이 10월 24일(목) 서울 조선포털에서 열린 '2019 한국광고주대회 - 광고주의 밤' 행사에서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침체된 영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영업을 되살리는 스토리를 담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생생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제작되어 온 국민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광고주대회는 최기환, 김민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정훈 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추석특집 파일럿 <맛남의 광장> 이달의 PD상

추석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된 <맛남의 광장>(연출: 이관원, 작가: 황보경)이 제235회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TV 예능 부문 수상작인 <맛남의 광장>은 지역의 특산품이나 로컬 푸드로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신 메뉴를 개발해 휴게소, 철도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만남의 장소에서 교통 이용객들에게 선보인 프로그램이다.

지역 농가 소득 촉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익성까지 담았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12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정규 편성이 확정되었다.



안수영 한국PD연합회장 이관원 PD 황보경 작가

<열혈사제> 2019 도쿄 드라마 어워드 특별상

<열혈사제>(극본: 박재범, 연출: 이명우)가 10월 28일(월) 도쿄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2019 도쿄 드라마 어워드에서 외국드라마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드라마로는 유일한 수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방송되어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열혈사제>는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중단편드라마 부문 작품상, 제14회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 부문 최우수작품상 등 국내 굵직한 드라마 시상식을 휩쓴 데 이어 해외에서도 낭보를 전해왔다.



'대한민국 음주 살인 보고서' 이달의 기자상 등 2관왕

보도국 탐사보도부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대한민국 음주 살인 보고서'로 10월 29일(화)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제349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다음날인 30일(수)에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주는 제13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이번 보도는 최근 12년 동안 살인과 닮없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데도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여전한다는 점 등을 데이터 분석과 현장 취재로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혜민 제일(A&T) 심영구



안준석(디자이너) 김민아(인턴) 심영구 이유림(인턴) 안혜민 조애리(개발자)



데이터로 입증한 "음주운전은 살인"

- 보도본부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심영구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故 윤창호 씨 사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너나없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연말에 고인의 이름을 딴 법이 두 개나 마련됐고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그럴까'하는 의구심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살인'이라고 부를 만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얼마나 될까 찾아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무사하거나 부상에 그쳤는데 피해자만 숨진 사고가 해당하겠죠.(가해자가 죽었다면 '자살'일 겁니다.) 데이터 확인이 가능했던 최근 12년, 이런 '음주 살인' 피해자는 3,899명이나 됐습니다. 매년 3백 명이 넘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는? 매년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가 감소세인 건 사실이었지만 월별로 보면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상습범은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술김에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상습 적발자들에게 왜 음주운전했냐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 "단속되지 않은 경험이 많아 이번에도 관참을 거라 생각했다"였습니다. 그렇게 또 음주운전을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니 무면허로 다시 합니다. 사망사고를 낸 이들이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반복된 음주운전을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대한민국 음주 살인 보고서>라는 이름 붙인 시리즈 보도를 했습니다. 과분하게도 9월 이달의 기자



상과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번 보도가, 음주운전을 '살인'이 아니라 '취중 실수로 여기는 인식 수준, '윤창호 법' 시행 이후에도 양형 기준이 바뀌지 않아 처벌 수위는 이전과 닮없는 현실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희생된 음주 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